

제2막: 팀워크의 묘미를 배우다

저녁 식사 후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이번 워크숍의 백미였습니다. 직급과 나이, 소속 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은 ***에 어봉 릴레이***였습니다. 긴 에어봉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여러 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 반환점을 돌아오는 이 경기는 혼자만 잘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나, 둘! 왼발, 오른발!” 팀장님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령에 맞춰 신입 주무관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음이 급해 스텝이 꼬일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잡아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넘 어질 듯 위태로운 순간을 웃음으로 넘기며 결승선에 들어오는 순간, 직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무 행정 역시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 동료와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지탱해 줄 때 비로소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3막: 팀워크의 묘미를 배우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화채 그릇을 닮은 독특한 분지 지형인 양구 편치볼을 찾아 대자연의 신비를 감상했습니다. 이어 양구수목원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폐부 깊숙이 피톤치드를 들이마셨습니다. 숲이 주는 맑은 공기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여정의 마지막은 편안한 휴식 공간인 인펠드에서의 티타임이었습니다. 딱딱한 회의 테이블이 아닌 감성적인 공간에서, 직원들은 업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가족, 취미,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는 대화 속에 ‘상사’와 ‘부하’가 아닌 ‘동료’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 싹텄습니다.

에필로그: 행복한 공무원이 만드는 친절한 강남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효과는 강렬했습니다. 워크숍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직원의 93%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동료들과 발을 맞추며 크게 웃었던 기억으로 다시 일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구민을 향한 친절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양구에서 채워온 맑고 건강한 기운으로, 강남구 세무 공무원들은 이제 구민을 위해 다시 힘차게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